

완주군, 신규사업 발굴 본격화

‘일자리·삶의 질·농업경쟁력’ 부문 군민 아이디어 공모 통해

완주군이 다함께 열어나가는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2017년 신규사업 발굴 체제로 발빠르게 돌입했다.

지난8일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자리, 삶의 질, 농업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의 으뜸도시 도약을 위해 으뜸완주군민 아이디어 공모와 유관기관·직능단체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그룹 참여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신규사업과 2018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준비에 본격 나섰다.

무엇보다 군은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 으뜸완주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완주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생생한 현장형 신규사업으로 연계하는 물론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제에 적극 반영해 군민중심 경영운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 발굴 준비는 민선6기 출범 이후 박성일 완주군수가 구축해 놓은 정책 싱크탱크와의 거버

넌스를 이끌어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민선6기 다함께 열어나가는 으뜸도시 완주의 성과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일자리), 르네상스(삶의 질), 농토피아(농업경쟁력) 완주’ 등 3대 핵심정책을 가속화하고 2대 중점과제인 어르신 건강향상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등 미래세대 위한 군민 중심 생활시책을 대거 발굴해 대한민국 으뜸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긴다.

민선6기 이후 완주군은 정책전문기관인 완주군발전연구원 발굴과 함께 우석대학교, 희망제작소, 전북발전연구원 등과의 업무협약 및 공동협력력을 통해 미래 100년을 책임질 먹거리를 지속적으 발굴해 오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오는 8월말까지 신규사업 발굴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조기에 개최해 2017년도

완주군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사전 준비절차를 본격 착수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더불어 신규사업에서 발굴된 대단위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 등을 보완, 2018 신규 국가예산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완주군의 미래 100년을 확실히 책임질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2017년은 15만 도농복합자치도시 완주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신규사업 발굴은 완주군과 군민들의 소통, 변화, 열정을 이끌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업계를 이끌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어 그 결과가 주민소득과 삶의 질에 있어서 대한민국 으뜸도시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혁신과 도전정신을 갖고 창의 행정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살고 싶은 무주 만들기 적극 협력”

군,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개최

무주군은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2016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앞당기고 민선 6기 향후 2년 과제인 “6차 산업화로 하나된 무주”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안호영 국회의원과 황정수 군수, 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부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사업 등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태권도원으로 이동,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

께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함께 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으로,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마을진입로 개선, 재해 위험요소 정비, 위험교량 재가설 등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을러, 국가예산 확보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동물농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태권마을 조성사업, 덕유산권 톨바미센터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건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태권도 명예의전당(태권전, 명인관) 건립 사업 등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공유했다.

황정수 군수는 “무주군은 안전한 삶의 공간, 넉넉한 살림살이를 만들어 군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 드린 무주군 현안들과 국가예산 사업들은 모두가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의 당위성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관계 부처를 설득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지와 역량이 무주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꼭 필요한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상수도 공급에 739억원 투입

고산·비봉·운주·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

완주군이 고산, 비봉, 운주, 화산, 경천면 대상의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고산·비봉·운주면 지방상수

도 개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단계인 화산·경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설계단계이다.

고산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35억원(국비 94억원, 지방비 41

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고산면 일원에 배수지 1,700㎡ 1개소와 송·배수관로 총 25.5km 및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고, 비봉·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14억원(국비 220억원, 지방비 94억원)을 투자해 비봉면과 운주면 일원에 각각 배수지 500㎡ 1개소와 송·배수관로 총 98.1km(비봉 41.7km, 운주 56.4km)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203억원, 지방비 87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화산, 경천면에 배수지 500㎡ 1개소와 송배수관로 64.3km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김중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면 고산, 비봉, 운주면 및 화산, 경천면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공중위생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고산·비봉면 등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진안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로 변환 4억여 원 예산절감 기대

진안군은 2016년 소관청단위 좌표변환 추진계획에 따라 수처리 등록된 지역을 제외한 13만2,000필지를 지구지정 신청하여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환 사업은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주관 아래 각 시군구 측지계 변환 담당 공무원(총16명)으로 TF팀을 구성, 위성측량방법으로 공점점 측량을 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변환하는 사업으로 소관청 지적

공무원들(총9명)이 직접 검증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총 4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5년 백운면 외 3개면 8만3,249필지 세계측지계 변환에 이어 올해까지 변환을 완료하면 전체 대상필지의 98%에 해당하는 215천 필지를 완료하게 된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

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이다. 진안군의 경우 계획대로 2018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되는 것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정수 무주군수가 인성면 우박 피해지역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무주안성 수락·덕곡마을 우박피해 발생

사과 등 40ha 규모

무주군은 지난 7일 오후 6시경부터 30분가량 내린 우박으로 안성면 수락마을과 덕곡마을 일대 약 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사과 25ha, 블루베리, 오미자 등 기타작물 15ha)가 발생했다.

이날 쏟아진 우박은 0.5~1cm 크기로 비바람을 동반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면 수락마을 주민들은 “애써 키운 과실들이 우박에 맞아 멍들고 찢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7월에 우박이 내리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참 막막하다는 말을 전했다.

군은 현재 추가 피해 여부와 농가별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사 중으로 국비확보를 검토하는 등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피해현장을 둘러 본 황정수 군수는 공무원들을 향해 “피해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잦아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고 행정은 농업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 별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어린이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무주 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봉희 등 직원 3명)가 군청 중합민원실 2층에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은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운영계획 보고, 현관제작 등에 함께 했다.

정봉희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위생, 영양, 안전 모든 분야에 대한 관리를 폭넓게 해나갈 것”이라며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균형잡힌 식사와 건강한 성장을, 부모님들께는 무한 신뢰를 심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무주군이 대한영양사협회 전라북도영양사회에 위탁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급식시설 17개소에 대한 등록을 마쳤으며, 순회방문센터 운영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운영계획 보고, 현관제작 등에 함께 했다.

정봉희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위생, 영양, 안전 모든 분야에 대한 관리를 폭넓게 해나갈 것”이라며 “전문적인 급식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균형잡힌 식사와 건강한 성장을, 부모님들께는 무한 신뢰를 심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농기계 폐 오일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진안군, 청정환경 지키기 앞장

농기계 폐 오일 무상 교환

진안군이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 오일을 새 오일로 무상 교환해 주고 있어청정환경 지키기와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 청정 1급수 유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은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하여 1만2,000㎡의 새 오일을 구입해 농기계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또한 직접 농업기술센터까지 내방이 어려운 농기계 보유 농가를 위하여 읍내부터는 북부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폐오일을 교환해 주고 있으며, 오지 마을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시 직접 교환해 줌 농가 호응이 높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많은 농업인들이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등의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폐 오일을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해야 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에 참여한 이동호(진안읍) 씨는 “폐 오일 교환사업은 농가 경영부담과 청정 1급수 만들기 좋은 사업이라며 연차적으로 교환량을 늘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은 “진안의 청정 자연과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전 농기계를 대상으로 폐오일 교환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돌리사

장수읍 ‘맞춤형 복지팀’ 신설

장수군이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을 위해 장수읍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장수읍 맞춤형 복지팀은 권역형으로 사회복지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전담 인력 3명이 배치돼 장수읍을 비롯해 산서면과 법안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 하반기 장계면을 거점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진천면, 계남면, 계북면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작은 영화관 기획전

11~16일까지 11편 무료상영

장수군에서 2016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장수 한누리 시네마에서 열리며 이 기간 동안 11편의 예술 및 독립영화가 총 28차례에 걸쳐 무료로 상영된다.

상영작품은 “괴물의 아이”, “과르톼”, “리틀토끼 도둑공주”, “러 랍스터”, “술이끼면 집에가자”, “마이크로 엔 가솔린”, “4등”, “프란치스코”, “모르는 척”, “어린왕자”, “치킨 히어로”이다.

특히 “치킨 히어로”와 “모르는 척”이 상영되는 12일에는 영화 관람 후 김은영(법무부 수위비행예방센터 전담강사) 미술치료사와 예교백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미술활동과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영화감상 표현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작은영화관 기획전에는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자아완성 힐링캠프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무주군내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아완성 힐링 캠프를 가졌다.

이번 캠프는 무주경찰서와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첫날은 청소년의 유해약물 오·남용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둘째 날은 친구간의 협동심을 키우는 서바이벌 게임, 완산 청소년 경찰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의 경각심 고취 및 경찰업무를 소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무거운 학업의 일상에서 탈출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함께하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힐링 캠프를 마친후 무주경찰서와 무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경찰, 교통사망사고 예방 총력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올 들어 상반기동안 교통사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중섭 장수경찰서장이 있다.

윤중섭 서장은 취임 직후 최근5년간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차종별, 도로별, 시간대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수지역은 19번국도, 13번위임국도, 26번국도가 통과하고 있다. 이중 19번국도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변 마을주민 상대 홍보활동 강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불시음주운전단속 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수경찰의 노력이 빛을 받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